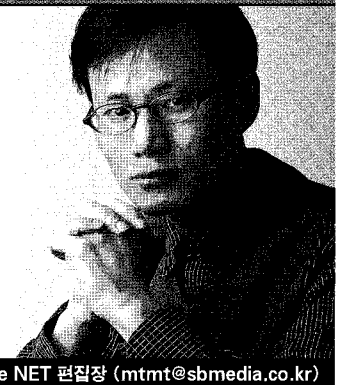


웹의 정보와 내 머리 속의 지식



박재곤/ on the NET 편집장 (mtmt@sbmedia.co.kr)

언 제부터인가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인터넷 때문이다. 찾고자 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다보니, 인터넷 이전 시대와 같은 정보에 대한 조바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웹에서 너무나 쉽게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서, 노하우보다 노웨어(Know-Where)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정보를 얻는데 투입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도 머리 속은 점점 더 텅비어가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어디서 본 것이 분명한 것들인데,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충 이런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사실의 구체적인 면면은 전혀 뚜렷하지가 않다. 결국 '나는 이것에 대해 이름은 들어봤다'는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분명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나이가 들어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도 있고, 젊은 후배기자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말이다.

특히나 영어로 된 정보는 더욱 심하다. 조금 앞선 정보를 얻으려 하다 보면, 해외 웹사이트를 많이 뒤적거리게 되고, 짧은 영어 실력으로 훑어본 것들은 대개 이름이나 주제만 기억하게 된다.

일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환경을 쫓아갈 수가 없다. 이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정보 취득은 그 속도나 편의성 면에서 온라인에 많이 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많은 정보 중에서 지식으로 체화되는 것은 얼마나 될 것인가. 날이 갈수록 머리 속이 텅비어가는 딜레마의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지식은 그 수준을 달리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Data) 의미를 갖지 않는, 즉 전혀 분류되지 않은 사실이나 디지털 코드의 나열을 의미한다. 정보(Information)는 이런 데이터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적절한 분류와 가공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된 것을 말한다.

그 다음 단계의 지식(Knowledge)은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체화된 것을 말한다. 즉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소유자가 정보를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이 된다.

이렇게 체화된 정보, 즉 지식은 그리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기자들이 기사 작성의 원칙이나 편집 방법 같은 것을 잊어버릴 리 없지 않은가. 이것은 이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체화됐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정보를 다 체화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의 특성상 노하우보다는 노웨어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사실 퍼베이시브 컴퓨팅(Pervasive Computing)이니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을 주창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면, 노웨어 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를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사실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는 역시 체화된 정보가 필요하다.

습관적인 웹 서핑과 주마간산 식의 정보 습득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만나면 약간의 수고를 들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수고라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닐 경우가 많다.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다소 큰소리로 읽어보거나, 프린트를 해서 차분히 보는 것도 방법이다. 영어로 된 것은 우리말로 번역해 보는 것이 효과가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웹에서 한 번 본 정보가 전부 내 머리 속의 정보가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KICRA**